**[예금보험공사]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일반행정**

**1.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내 꿈은 예금 수호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회계를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에 생소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회계 선생님께서는 저희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 주셨고, 즐겁게 공부한 덕분에 회계 과목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계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경제 골든벨 대회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금융 용어를 공부하다 보니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파산하자 사람들이 예금을 환급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들의 예금을 돌려주는 기관이 어딘지에 관한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역시 다양한 예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비롯한 사람들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부족한 점은 많지만, 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강점인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입사 후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할 것입니다. 입사 후 첫 번째 목표는 회계사 자격 취득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나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예금보험공사 사내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후배 간의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배님을 배려할 줄 아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 삶에서 겪었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할 때였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는 제가 특성화고에 진학하기엔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저는 오히려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대학교에 가길 원하셨고, 대학보다 취업을 원했던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 진학 후의 제 계획과 목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 성적 관리, 그리고 졸업 후엔 어떤 회사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의견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oooo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꼭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역시 즐겁게 하였습니다. 취업 동아리에서 1학년 때부터 신문을 읽으며 시사상식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축제를 비롯한 행사에서도 책임자와 같은 역할을 맡으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자격증도 공부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 드리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더욱 신뢰하셨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 좌절할 때는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념이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에 약속드렸던 모든 것을 지킨 저는 이제 마지막 약속인 취업을 여기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부모님에게 보여드렸던 ‘신뢰’를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 개인의 이익 또는 편리함보다 자신이 속했던 단체, 모임 등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과제의 성공, 효과적인 협업, 또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던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상업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ERP 대회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학년별로 두 반을 편성했습니다. ERP 네 가지 모듈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야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친구는 대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남아서 공부를 했고, 저 역시 쉬는 시간이 되면 ERP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부하면 조금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그 이후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ERP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의견을 따라주었고 틈틈이 만나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저희는 대회 참가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자격증을 먼저 취득했던 저는, ERP를 늦게 접하여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지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저 역시 다시 한 번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였고, 친구들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총인원 15명 중 저를 포함한 2명에게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고 아쉽게 선발되지 못한 친구들도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회에 나간 저와 친구는 함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각각 동상과 장려상을 받았고, 전국 대회에 참여하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자신이 속했던 단체, 모임 등에서 자신과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장소를 정할 때였습니다. 서울, 부산, 전주 등 다양한 관광지가 제시되었고 여러 의견을 조합한 결과 전주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한 번 놓치게 되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려 했지만, 친구 한 명의 지각으로 코앞에서 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친구들은 여행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시간이 줄더라도 원래 목적지에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차라리 기차를 타고 순천을 여행하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은 전주행 교통비보다 저렴해서 비용적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관광지가 적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휴대폰으로 순천만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 순천만과 드라마 세트장 등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꽉 막힌 고속도로를 지나는 것보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색다른 매력일 것이라는 얘기를 꺼내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세한 관광자료를 보던 친구들도 점차 제 말에 수긍하기 시작하였고 함께 코스를 짜게 되었습니다. 즉석에서 목적지를 정하여 떠나는 즉흥 여행이었지만 친구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 때문에 여행은 순조롭게 이어졌고, 다녀온 후에는 ‘다른 여행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기술서> - 1487**

◆축제의 ‘경영자’ 바람직한 성과 창출

  2학년 때 명장 선생님께 도자기 만들기와 다도(茶道)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과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작품을 만들어 학교 축제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전시장에는 도자기를 보러 온 이들을 위한 작은 찻집이 마련되어졌고 저는 전시장의 총책임자로서 효율적 전시 진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인사성이 밝은 친구는 입구에 배치하여 손님이 좋은 인상을 받게끔 하였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친구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내성적이고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친구들은 각 구역에서 작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1학년 축제의 찻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차만 드시다 가신 것을 생각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모금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무료로 차를 제공한 대신 모금함에 모인 돈으로 어려운 이를 돕는다면 보다 가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손님들은 작품을 보시며 ‘이 학교는 창의적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배운 것들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자 그보다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일 찻집을 연 결과 약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모였고, 그 돈은 방송국을 통해 기부하였습니다.

◆학급의 ‘도우미’라고 불러 주세요!

  1학년 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학급 명렬표를 만들기 위해 표를 사용하여 정리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문서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ITQ와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 있어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파일을 넘겨받은 저는 곧바로 표를 생성하여 학생들의 수대로 정리하였고, 또 선생님이 주신 학생들의 학번, 이름, 주소를 채워 넣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드리자 ‘연화는 손이 참 빠르구나.’라며 칭찬을 해 주셨고, 반장 역시 대신 일을 마무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문서 처리는 제가 먼저 나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무에 특화된 인재, ooo

  상업경진대회 ERP 종목을 위해 기출 문제를 풀 때였습니다. ERP 모듈에는 회계, 인사, 물류, 생산이 모두 있어 회사 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를 푸는 자격증 시험과 달리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회사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모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되어 있음을 배우고, 실제 회사에서도 각 부서가 서로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자격증 시험 위주로 공부하였다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의 강점은 ‘실무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